

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딱 한 번 외에는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고, 또 포기한다. 그 한 번이 언제냐? 1장의 유다 자손의 승리다. 갈렘이 앞장 섰던 유다 자손은 전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, 훗날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궁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땅이 된다.

**이 1장의 유다 자손의 승리 외에는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완전 정복을 실패한다.** 정복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? 적당히 타협하며 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한다. 그것이 사사시대다.

**이 사사기의 교훈이 뭐냐?**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다. 고전10:11에 말씀한대로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다.

유럽 교회, 미국 교회를 비롯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텅텅 비고 있다. 물론 마지막 때의 예언이다. 세상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,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, 배교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생긴다고 했다. 그러나 그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,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. 결론은 그때 끝이 올 것이라고 했다(마24:14)

**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살리고, 교회를 살리고, 이 시대를 살릴 사명자로, 남은 자 곧 렘넌트로 부르셨다.**

세가지만 분명하면 된다. 오늘 본문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놓쳤던 것 세가지를 말씀하고 있다.

**1.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냐?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다(“언약의 백성”)**

1절에 “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내고,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어기지 않을 언약을 세웠다”는 것이다.

**1)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?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다.**

이스라엘을 400년 저주, 운명, 대적의 손에서 건져 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 내셨다는 것이다(“구원”의 의미) 나도 모르는 저주,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,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대적(원수 마귀)이 있다는 것이다.

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아는데,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실패와 고통이 계속 된다.

**2)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?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저주와 운명, 사단의 권세를 끝낸 것이다(요19:30)**

그 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다.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. 운명이 바뀐 것이다. 사단은 나를 해방하고 속이려고 하는데,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그 머리를 박살냈다.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. 이 결론이 나와 한다. “다 끝났다”

**3)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시대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것인가? 그것이 내 정체성이고, 결론이다.**

① **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(행1:8).** 광야를 지나가도 상관없다. 하나님이 정확하게 먹이시고,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. 요단강이, 여리고성이 가로 막아도 상관없다. 언약궤 앞세우고 가니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. 그래서 염려, 근심하지마라는 것이다. 되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(사60:22).

② **마지막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? 그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릴 자로 쓰시겠다는 것이다(천명, 소명, 사명)**

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. 우리 능력 아니다.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겠다는 것이다. 성령의 능력이다. 이 그리스도, 하나님의 나라, 성령의 능력이 각인, 뿌리, 체질되게 만들라는 것이다.

③ **이 메시지가 어려운가? 계속 들어보라(롬10:17).** 깨달아지게 되어 있고, 어느날 각인, 뿌리, 체질 되면서 그것이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다.

**2. 이 언약을 주시고,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“오직으로” 누리면 된다.**

누린다는 말은 모든 문제, 사건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,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다(살전5:16-18)

**1) 언제 누리냐? 먼저는 평상시다(그것이 24시다).**

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,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.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를 “언약 기도”라고 한다. 날 구원하신 하나님, 날 승리케 하실 그리스도, 언약한 날 세우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분으로 행복하고, 충분하고,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만들라(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래야 한다)

**2) 혹시 문제가 오면 그 시간이 그 오직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(그것이 25시다)**

① **원래 “25시”라는 단어는 게오르규라는 사람의 소설 “25시”에서 처음 쓴 말이다.** 절대 절망의 시간이고, 더 이상의 희망을 잃어 버린 시간이다.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문제다.

② **그러나 그 절대 절망의 시간이요, 인간의 모든 한계와 희망을 잃어버린 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.**

오히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붙잡는다(“과도 타기”)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누린 것이다. 요셉이 노예로 가고, 감옥에 간 것이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린 시간이었다.

**3) 그 이후에 따라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? 유일성의 응답과 증거다.**

어떻게 노예로 간 요셉이,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대 제국의 총리가 되는가? 불 속에 들어가고, 사자굴에 들어가도 ‘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다’는 것이다.

**3.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할 결단을 하라.**

우리가 정복 못하면 정복 당하는 것이다. 세상 문화와 유혹과 위협에 끌려 다니다 세상에 짓밟히는 것이다.

**1) 많은 일,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. 내게 맡겨진, 주어진 일을 생명 걸고 하면서(당연성), 그 힘으로 나중에는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해보라(필연성).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여진다(절대성)**

**2)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짓밟힐 때 사사들을 보낸다. 사사기에 열 두명의 사사들이 등장한다.**

대단한 사람들인가? 아니다. 충실하게 집에서 소를 몰던 사람이 사사가 된다(삼갈). 언약한 여자가 시대를 살리는 사사가 된다(드보라).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 늘 숨어지내던 사람이 사사가 된다(기드온). 물론 그 중에 나면서부터 부모의 기도 배경에서 세워진 사사도 있다(삼손). 그도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시간도 겪는다.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다.

**3) 한 사람의 사명자(사사)가 세워지는 데, 절망의 현장에 희망이 생기고,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(재창조의 역사)**

사도행전에 바울이 다닌 도시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한 사람의 제자 이름들이 등장한다.

대 집회를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.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한 것이다.

그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라고, 내 현장에서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찾아 팀이 되는 축복을 누리려라.

**결론-사사 시대의 사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동시에 그 어둠의 시대(삿21:25)를 살린 제자의 모형이다.**

끝없는 재앙과 갈등과 문제가 계속되는 이 시대에, 내 현장에서 사사 시대의 그 한 사람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한다.